



IMF,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정책합의 강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IMF의 EU 금융부문 평가 보고서¹⁾는 유럽연합(EU)과 ECB(유럽중앙은행)가 유럽 금융시장 안정화에 진전을 가져올 만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은행감독 통합과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

- 유로존의 은행감독 통합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해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단일 은행감독기가 각 은행 감독에 차이를 둘 경우²⁾ 금융시장 불안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

-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취해질 것을 요구함.
 - 유럽안정화기구(ESM)의 부실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을 통해 은행 부문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, 은행부문 위기와 재정부문 위기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
 - 2013년 중반까지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테스트(재무건전성 테스트)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함.
 - 스트레스 테스트가 미시 건전성 및 지불 능력 검증 이외에도 유동성 리스크나 구조적인 위험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, 은행의 자본의 질(quality)에 대한 검증 절차 도입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.

(IMF 등. 12/21)

1) IMF(2012. 12), *European Union: Financial Sector Assessment*.

2) ECB가 6,000개 은행 가운데 150개 주요 은행만 직접 감독하고 나머지는 각 유로존 국가 규제당국에 따라 감시받도록 함에 따라 완전한 감독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.